

鄧小平體制的 實用主義路線의 理念과 中國式 社會主義

康 根 亨*

目 次

- I. 序 論
- II. 鄧小平體制的 實用主義路線의 理念的 特徵
- III. 社會主義初級段階論과 中國式 社會主義
- IV. 結論: 評價 및 展望

I. 序 論

1949년 毛澤東이 중국 대륙을 석권한 이후 전개된 中國의 共產革命에 뒤이어 4반세기만에 鄧小平에 의해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實用主義革命은 중국의 제2공산혁명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중국사회와 외부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는 毛澤東思想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中國共產黨은 中國의 전통문화와 사회구조를 뒤엎는 특이한 社會主義 사회로 中國을 개조하려고 노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를 수천년 중국사회에 자리잡아 왔던 生産樣式과 社會構成 원리를 파괴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社會主義·全體主義 틀을 들여 놓았다. 그러나, 中國共產黨의 열성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中國社會를 그들이 理想으로 하는 共產社會로 개조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혁명이데올로기는 혁명 성취와 동시에 새로운 체제의 管理이데올로기로 역할을 달리하기 때문에 革命的 理想을 실현하는 저해요소로서의 현실여건에 부딪혀 순탄하게 혁명과업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師範大學 國民倫理教育科

毛澤東 사망후 교조적이며 급진적이던 四人幫을 중심으로 한 文化革命 추진세력과 현실적용을 강조해오던 온건노선의 鄧小平 등의 實用主義 세력과의 권력투쟁을 거쳐,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鄧小平 주도의 제2혁명, 즉 實用主義路線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다. 1978년 12월의 중국 공산당 제11기 3中全會를 계기로 굳혀진 鄧小平體制의 성격과 이 체제가 설정한 정책노선에 따라 中國은 엄청난 변신을 시작했으며, 1980년대와 90년대는 이러한 변신이 구체화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鄧小平體制가 주장하고 있는 '中國式 社會主義'를 규명하기 위하여 첫째 鄧小平體制의 實用主義路線의 이념적 특징을 분석해보고, 둘째 이러한 實用主義路線下에서 주장되고 있는 사회주의초급단계론을 규명한 후, 이에 입각하여 '中國式 社會主義'의 특징을 추론하여 보려 한다. 셋째, 이러한 바탕위에서 '中國式 社會主義'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 갈 것인가를 전망해 보려한다.

II. 鄧小平體制의 實用主義路線의 理念的 特徵

中國의 정치과정에는 이데올로기와 政策定向이 다르고, 權力利益이 상충되는 두개의 理念, 즉 毛澤東思想과 實用主義가 존재하며, 中國政治의 變化는 이들 두 노선과 세력의 상호갈등과 대립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毛澤東思想과의 비교를 통해 實用主義路線의 이념적 특징을 분석하기로 하겠다.¹⁾

1. 經濟決定論

毛澤東은 중국이라는 후진사회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실천함에 있어 지도층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비록 객관적인 환경이 혁명수행에 미흡하다라도 혁명을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하에 공산혁명을 성공시켰다. 毛는 공산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上部構造의 변혁이 生産力의 발전에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즉,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공산주의적 목표가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적절한 사회적 가치들이 확산되어 미래 공산주의 사회의 물질적 선행조건들을 창조하는 과정에 내면화되지 않는다면 공산주의 사회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²⁾

이와 같이 毛는 역사의 창조와 공산주의적 미래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적절한

1)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康根亨, "中共 實用主義路線의 이데올로기적 性格: 毛澤東思想과 관련하여," 『濟州大學校論文集』, 제25집(1987), pp.323~341 참조.

2) Maurice Meisner, *Marxism, Maoism and Utopianism*(London: The Univ. of Wisconsin Press, 1982), pp.121~122.

혁명정신과 도덕적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인간임을 강조한다. 전체인민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할 때, 사회주의건설은 이룩되며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의 精神이라는 主意主義(Voluntarism)의 입장이며,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은 곧 인간의식의 혁명임을 의미한다. 요컨대 객관적 세계(환경)의 전환은 주관적 세계(정신)의 전환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 환경을 공산주의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신을 우선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해야 된다는 것이다.³⁾

그래서 毛澤東은 비록 생산수단의 소유체가 개인에서 共同이나 集團所有制로 바뀌었다고 해도 개인의 意識狀態는 그에 상응해서 변하지 않고 과거의 잔재를 지속적으로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같은 논리를 뒤집어 보면 비록 경제적·기술적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 할 지라도 군중의 意識은 客觀的 與件에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도 성립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毛는 경제기술적인 客觀的 條件보다 농민들의 集團志向的 意識狀態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1955년에 農業合作社를 결성했으며, 大躍進運動 때도 8억의 中國人民들이 共產主義 건설의 정열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客觀的 與件의 미숙을 능히 보충하여 고차원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精神力으로 物質的 基盤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다분히 唯心論的 主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⁴⁾

이와 같이 毛澤東이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 상부구조의 변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毛가 人間中心主義的 主意主義를 선호하는 점에 기인하겠으나, 중국혁명의 객관적 현실이 이를 더욱 부채질 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社會主義 형성과정이 정통 마르크스주의적 발전경로를 밟지 않았다는 점에 서 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성숙단계에 도달하여 자본주의적 모순이 첨예화될 때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의식이 성숙되며, 따라서 프롤레타리아가 주체가 되는 사회주의 혁명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사회주의가 도래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은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기본적으로 封建制度가 지배적인 사회로부터 作爲的으로 社會主義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정치엘리트가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사회의 전반적인 上部構造에서 맡는 능동적 혹은 주도적 역할이 필연적으로 강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毛澤東思想에서는 사회주의 혁명 완수를 위해서는 上部構造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정치결정론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는 달리 鄧小平의 實用主義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역사와 경제발전에 객관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즉,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3) 柳世熙, “中共의 이데올로기적 變化: 毛澤東의 毛思想과 鄧小平의 毛思想,” 「中蘇研究」, 제8권, 제4호(1984/5 겨울), p.21 참조.

4) 鄭鍾旭, “毛澤東思想과 마르크스主義의 中國的 受容,”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제5권, 제1호(1983년 7월), pp.62~63 참조.

의지와 욕구와 무관한 어떤 不變의 法則에 의해 움직여 간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의 발전은 물질 세계의 발전과 동일한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마치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법칙들이 역사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역할 수 없듯이,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을 지배하는 특별한(거의 객관적인) 경제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는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객관적인 법칙을 발견하여 그것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달려있게 된다. 이러한 객관적인 유물론적 역사법칙에 대한 신념은 대체로 점차 마르크스 이론의 경제결정론적 해석쪽에 기울고 있는 중국 공산주의의 새로운 조류속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것은 사회주의를 위한 물질적 전제조건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지배적인 견해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毛澤東은 사회주의로의 역사적 전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근대적인 경제 발전과정과 더불어 반드시 사회적 관계와 대중의식의 계속적인 변화과정이 수반되어야만 한다고 (사실은 그것이 경제발전을 좌우한다고) 믿었던 반면에, 毛 이후의 實用主義者들은 먼저 생산력의 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 사회주의 사회를 위한 결정적인 전제조건이 된다는 정통 마르크스이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와 같은 필수불가결한 경제적 전제조건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기나긴 역사적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발전 법칙들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 바뀌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黨의 주관적인 의도’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이므로 인간은 객관적인 법칙들이 역사적 현실에 드리우고 있는 제약조건들을 이해해야만 하고 그것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주장들은 모택동시대의 경제적 실패와 정치적 혼란이 인간의 의지 및 의식 등의 요소들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사회적 생산관계의 성급한 변혁들로부터 초래된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上部構造가 역사발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생각은 이제 임포와 4인방에 의해 선전된 반동적 이론으로 비판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實用主義者들은 사회주의적 미래가 궁극적으로 객관적인 역사·경제적 법칙들의 비인격적인 작동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바로 生産力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社會主義 사회의 도래를 위한 최우선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반복적인 주장은 그 과정의 장기성과 비인격성이라는 두가지 특징을 모두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가난하고 후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가야할 길은 멀고 험한 길이며, 최후의 목적지는 머나먼 곳에 있다. 그러한 와중에서 인간의 에너지는 전적으로 생산적 작업에 투여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社會主義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필수적 전제조건인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5) Maurice Meisner, *op. cit.*, p.218.

6) *Ibid.*, p.219.

7) *Ibid.*, p.220.

8) *Ibid.*, pp.220~221.

따라서 오늘날 중국의 實用主義者들의 정신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역사발전에 관한 혁명적 개념이 아니라 진보적인 개념이며, 또한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이상적인 희망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인 법칙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신념이다. 결국 이러한 생각은 중국이 사회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의 사회주의적 정신무장 보다도 우선 경제적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력의 발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經濟決定論的 立場이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1984년 10월 中國共產黨 12期 3中全會의 '經濟體制改革에 관한 決定'에서 '社會主義의 근본적 임무는 사회생산력 발전으로 사회의 富를 증대시켜 인민의 날로 증가하는 물질적 수요와 문화적 수요를 부단히 충족시키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 階級 和 合

상술한 바와 같이, 上部構造의 의식개조를 강조하는 毛澤東思想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도 끊임없는 계급투쟁과 不斷革命을 강조한다. 반면 鄧小平의 實用主義는 사회주의하에서는 계급투쟁이 이미 소멸했다고 보고, 계급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마르크스와 레닌은 일단 사회주의체제가 성립되면 프롤레타리아계급의 독재로 계급투쟁은 종식되는 것으로 본데 반하여, 毛澤東은 사회주의 체제내에서도 프롤레타리아계급에 적대되는 계급이 출현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요소의 제거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한다.⁹⁾

이러한 毛澤東의 계급투쟁론이나 不斷革命論은 모든 현상을 대립과 갈등으로 보는 그의 '矛盾論'¹⁰⁾에 근거한 것이다. 그의 '矛盾論'은 우선 矛盾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자연계의 변화는 주로 자연계에 내재하고 있는 内部的 矛盾의 발전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며, 사회적 변화는 주로 사회의 内部的 矛盾의 발전, 다시 말하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계급상호간의 矛盾, 새로운 것과 낡은 것 사이의 矛盾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들 사회의 내부적 모순의 발전이야말로 모든 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이고 그러한 矛盾의 法則이 바로 社會發展의 法則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矛盾은 자연계, 인간사회를 막론하고 어떠한 사물에 있어서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특히 인간사회에 있어서 矛盾없는 사회란 있을 수 없다. 봉건사회는 봉건사회 대로의 모순을 가지며, 자본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대로의 모순, 그리고 사회주의사회에 있어서도 역시 그것 대로의 矛盾을 내포하고 있다고 毛澤東은 설명한다.¹¹⁾ 그러므로 모순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변증법을 부인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사회의 모순은 그것의 해결책이 다른 것처럼 성격면

9) 「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 「人民日報」, 1984年 10月 21日.

10) 유세희, 「中共의 이데올로기적 변화: 毛澤東의 毛思想과 鄧小平의 毛思想,」 p.23.

11) 「毛澤東選集」, 第1卷(北京:人民出版社, 1953), pp.287~326 참조.

12) 「毛澤東選集」, 第1卷(北京:人民出版社, 1953), p.295.

에서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어떤 시대의 社會도 끊임없는 모순을 통하여 발전해간다. 사회주의 사회도 역시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을 통해 발전한다. 이상주의 (Idealism)와 유물주의 (Materialism)간의 모순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소멸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즉, 주관과 객관 사이,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矛盾이 상존하는 한 유물주의와 이상주의 사이의 모순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¹³⁾ 이처럼 어떠한 사회의 어떠한 요소에도 矛盾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곧 그러한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운동이 보편적으로 恒存함을 의미한다. 인간사회에 있어서 内部矛盾을 해결하고자 하는 運動은 바로 革命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는 革命의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사회가 각종의 矛盾을 안고 있는 한, 不斷한 革命의 필연성과 필요성을 내포하기 마련이라는 것이 바로 毛澤東의 矛盾理論의 귀결점이 된다.

예컨대, 중국공산당이 중국대륙을 석권한 후,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계급과 계급모순 및 계급투쟁이 계속 존재한다고 모택동은 보았으며, 그것이 그들이 정권 수립후 여러차례에 걸쳐 정치·사상·문화영역에서 整風運動을 전개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한다. 毛澤東은 계급이 단순한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意識, 思想 및 態度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상과 태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계급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록 사회주의 제도가 기본적으로 확립되어, 생산수단 소유제를 개조하는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승리하였다고 할지라도, 思想·이데올로기의 면에서 無產階級·資產階級 중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장기간의 투쟁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그 승리가 확정지어지는 문제라고 보았다.¹⁴⁾

이상의 矛盾論에 기초한 不斷革命論은 모순의 해결이 兩者간의 調和나 和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이나 갈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一分爲二論’¹⁵⁾에 기초한다. 唯物辨證法은 定立→反定立→綜合으로 한 단계의 발전이 완성되면, 다시 綜合이 定立이 되어 反定立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며, 定立에서 反定立이 분리되어 대립되는 소위 ‘一分爲二’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一分爲二’는 혁명적 唯物辨證法의 철학이며 無產階級的 세계관이다. 무산계급은 그러한 세계관에 의해서 사물을 관찰한다. 모순은 사물 그 자체의 고유한 것이며, 모순의 두 측면은 통일되어 있기도 하고 서로 투쟁하고 있기도 하며, 모순은 사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립면의 통일성은 상

13) Stuart R. Schram, *The Political Thought of Mao Tse-tung* (London: Frederick A. Praeger, Publisher, 1963), p.236.

14) 金河龍, 「中國政治論」(서울: 박영사, 1985), p.102.

15) ‘一分爲二論’은 毛의 주장으로 매 사물은 모두 모순되는 양면을 지니고 있어 統一되면서도 투쟁하게 된다. 고로 자본주의 사회중에서는 노동계급과 자본을 가진 계급이 있고, 사물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혁신과 수구, 진보와 퇴보가 있듯이 모든 사물에는 二重性이 있다는 것이다. “中國社會各階級的分析,” 「毛澤東選集」第1卷(北京:人民出版社, 1953), pp.3~4.

대적인 것이며 대립면의 투쟁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 때문에 유물변증법의 임무는 원래 矛盾을 덮어 숨기는 것이 아니라, 모순을 폭로하고 모순해결의 올바른 방법을 찾아내고, 모순의 轉化를 촉진시킴으로써 세계를 혁명적으로 변혁시키는 목적을 완수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무산계급이 이러한 세계관에 의해서 계급사회를 분석하는 것은 계급모순과 계급투쟁을 인식하여 계급투쟁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임을 자각하고, 계급투쟁을 끝까지 수행하여 사회변혁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¹⁶⁾

반면, 鄧小平의 實用主義의 계급 및 계급투쟁에 대한 견해는 이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실용주의자들은 정치적·사상적 태도에 따라 계급을 규정하는 毛澤東思想의 견해는 마르크스의 계급론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계급이란 사회의 경제구조에서 점유하는 개인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중국사회의 경제구조가 변모된 1956년 이후의 계급과 계급관계를 사회주의 개조가 있기 이전의 계급관계와 동일시하는 것은 비마르크스적 견해라고 본다. 다시말하면, 프롤레타리아專政이 확립되고 집단화와 국유화와 같은 사회주의 개조가 완결된 1956년에 사회주의 혁명은 사실상 종결되었으며, 대규모의 계급투쟁을 더 이상 계속할 근거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즉, 사유재산제도가 근본적으로 제약되고 집체경제가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한 중국사회에서 계급투쟁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용주의노선에 의하면, 사회주의 사회의 주요모순은 계급간의 모순과 갈등이 아니라 경제생활의 향상을 바라는 대중들의 요구와, 그에 부응할 수 없는 중국의 경제적 낙후성에서 파생되는 모순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중국사회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모든 계층이 협력·단결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이다.¹⁷⁾

이러한 實用主義과의 주장은 唯物辨證法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인 '合二而一論'¹⁸⁾에 근거한 것인데, 이는 모순의 해결이 양자의 調和와 和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해석이다. 즉, "二가 합해서 一이 된다"는 주장은 唯物辨證法이 定立에서 反定立이 분리되어 대립되는 소위 '一分爲二'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동시에 定立과 反定立의 二者가 합쳐서 統合의 一로 이루어지는 統合의 과정을 내포한다. 따라서 유물변증법은 전자인 '一分爲二' 과정보다는 후자인

16) 김하룡, 앞의 책, pp.100~101 참조.

17) 1978년 제11기 3中全會에서 중국 공산당은 계급투쟁의 종식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외적의 침략이 없는 한 중공당의 중심과제는 경제발전과 4개 현대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人民日報」, 1978年 12月 24日. 徐鎮英, "毛澤東의 政治經濟學과 4個 現代化 政策의 發展理論比較," 「中國學論叢」, 고려대 중국문제연구소, 1984년 4월, pp.137~138에서 재인용.

18) '合二而一論'은 1963년 중국공산당 고급당학교 교장이었던 楊獻珍이 주장한 것인데, 이로 인해 毛澤東派의 反毛派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다. 자세한 논의는 김하룡, 앞의 책, pp.98~101 참조.

'合二而一論'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는 D.W.Fokkema, "Chinese Criticism of Humanism: Campaign Against the Intellectuals, 1964~1965," *The China Quarterly*, No.26(April-June 1966), pp.71~74 참조.

‘合二而一’의 과정이 그 본질을 이룬다는 것이다. 즉 ‘對立面的의 統一’, ‘矛盾의 統一’이라는 것은 두개의 對立面이 불가분으로 결부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 ‘合二而一論’은 矛盾의 對立,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노선 사이의 투쟁, 무산계급과 자산계급 두 계급 사이의 대립을 본질적으로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毛澤東思想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矛盾調和·鬭爭否定的 변증법이론이었으며, 따라서 階級和合을 앞세우는 劉少奇, 鄧小平 등의 調整政策을 유물변증법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계급투쟁을 부정하는 주장은 상기한 바의 1978년 11기 3중전회뿐만 아니라 1979년 6월 제5기 全國人民代表大會 제2차 회의시 현 중국 당국의 정부활동보고에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즉, “계급으로서의 지주계급·부농계급은 이미 소멸하였다. 계급으로서의 자본가도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계급 가운데 노동능력이 있는 압도적 다수는 이미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사는 노동자로 개조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四人幫의 잔존자나 잘 개조되지 않은 극히 소수의 지주, 낡은 착취계급의 일부 잔존자들에 대해서는 무산계급독재를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금후 대규모의 대중적 계급투쟁을 진행시킬 필요는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¹⁹⁾고 천명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 현당국의 계급분석은 사회주의 단계에 있어서도 자산계급과 무산계급 사이의 대립·모순은 엄연히 존재하며, 끊임없이 계급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毛澤東의 不斷革命 및 矛盾論을 크게 수정한 것이며, 결국 毛가 배격하였던 階級和合의 ‘合二而一論’으로 복귀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能率主義

앞에서 서술한 路線의 대조는 政策의 내용에서도 잘 반영되었다. 毛澤東思想은 정책목표로서 平等의 실현을 삼지만, 實用主義는 能率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계급투쟁 자체가 결국 계급없는 共產主義社會를 목표로 삼고 추진하는 것이므로 平等을 증시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實用主義는 經濟第一主義로서 現代化를 목표로 하므로 생산과 조직에 있어서 能率을 증시하게 된다.

平等主義는 毛思想에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의 주제이다. 대약진을 촉진했을 때 毛는 도시와 농촌, 근로자와 농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간에 격차를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원하는 바를 가질 수 있는 共產主義社會를 앞질러 실현하려고 기도했던 것이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1958년의 ‘人民公社’²⁰⁾였다.

19) 「人民日報」, 1979年 6月 26日.

20) 人民公社는 집단소유제의 기초위에 농업, 공업 및 상업이 결합된 사회주의적인 경제조직이다. 인민공사는 1958년에 毛澤東이 ‘三面紅旗’ 정책의 하나로 몇몇 高級農業生產合作社를 연합하여 만든 조직이며, 三級(人民公社, 生產大隊, 生產隊) 所有制를 채용하였고 생산대를 기본 재산단위로 한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毛는 國家計劃과 集團人原則을 강조하는 바, 인민공사가 대단위로 조직되었던 1958년 말, 한 때 자유시장을 전면 중단한 적이 있었다. 약 5천호로 구성된 人民公社는 모든 생활을 집단화했다. 즉, 인민공사가 결성된 후에는 모든 토지를 집단화했고, 개인이 경작하던 自留地마저도 몰수한 적이 있었다. 공장생산도 국유화된 공장에서 근로자는 위에서 내려온 국가 계획에 의거하여 생산을 할 수 밖에 없었다.²¹⁾

이른바 毛澤東이 추구하는 사회주의사회란 모든 불평등이 점차로 소멸되는 사회이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정책에서도 富의 창조, 즉 生産力의 증가라는 문제보다도 共同富裕의 공산주의사회에로의 접근이란 차원에서 富의 균등분배문제를 더욱 중요시했다고 하겠다. 따라서 毛思想은 부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個體經濟의 활동범위를 가능한 억제하고 集團經濟의 役割을 확대하려고 하는가 하면, 산업구조의 불균형발전과 集體와 集體, 또는 個人과 個人간의 불평등을 점차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을 강조한다.²²⁾ 예를 들면 集體所有權의 범위가 넓고 규모가 큰 소위 '一大, 二公'의 人民公社의 우수성을 강조한다든가 또는 按勞分配의 社會主義 分配法則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소득의 불평등을 억제하고 대중의 물질주의적 성향을 극소화할 수 있는 大槩式 分配制度를 확대·실시하려고 하였던 것이다.²³⁾

한편, 鄧小平의 實用主義는 毛澤東에 의해 강조된 지나친 平等主義가 공산주의자들이 최종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유토피아적 共產社會에서나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서, 한참 사회주의를 건설해 가야 할 현단계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본다. 平等主義는 노동의 내용이나 실적에 관계없이 균등한 물질적 반대급부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일에 대한 의욕과 창의성을 잃게 만들고 서로 남에게 일을 미루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산에 있어서 효율을 높일 수 없고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

生産力의 발전에 최고목표를 두고 있는 實用主義는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밥을 먹여주는 던저도 깨지지 않는 쇠밥그릇(鐵飯碗)을 깨어 버려야 된다고 주장한다. 밥그릇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실적에 따라 크기도 달라야 하고 밥그릇에 담기는 음식의 내용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²⁴⁾ 이러한 실적에 따른 배분이라는

인민공사는 政社合一(정치권력과 경제조직의 일체화)의 조직으로서 농촌의 기층행정단위이기도 하다. 極東問題研究所, 「中共用語·情報辭典」(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86), p.381 참조.

21) 安秉俊, 「中共政治外交論」(서울: 박영사, 1986), p.245.

22) 郭大江, “走社會主義 共同富裕的道路,” 「人民日報」, 1975年 8月 9日.

23) 大槩式 분배제도란 自我評價와 공개토론을 통하여 집단내부의 화합을 꾀하며 도덕적 작업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모든 농민은 같은 工分(작업점수)을 받기 때문에 힘센 농부와 약한 농부사이의 소득격차는 적으며, 일 잘하는 농민은 더 열심히 일하려는 자극을 상실하게 된다. 李相俊, 「中共經濟論」(서울: 박영사, 1985), p.129 참조

24) 유세희, 앞의 글, p.25.

能率主義政策은 1984년 10월 中共黨 第12期 3中全會에서 채택된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에서 "많이 일하면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적게 일하면 적은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두뇌노동과 육체노동, 복잡노동과 단순노동,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 힘든 노동과 힘들지 않은 노동과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일부 지역, 일부 기업 및 일부 사람이 근면하게 노동하여 먼저 부유해져야만 대다수 사람에게 강렬한 호소와 고무적인 작용을 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갈수록 많은 사람이 한 파도 한 파도씩(一浪接一浪) 부유해질 수 있다. ... 일부 사람을 격려하여 먼저 부유하게 하는 정책은 사회주의 발전법칙에 부합하며, 전체사회가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다"²⁵⁾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업적이나 능률에 따른 차등 배분의 원칙 천명은 현재 중국 당국이 추진중인 企業自主權의 확대, 市場調節機能의 도입, 가격체제의 합리화, 경제책임제와 노동에 따른 분배, 농촌에 있어서의 包產到戶制에 의한 인민공사의 해체와 脫集團化 등의 政策 속에 구현되고 있으며, 이는 다분히 물질적 유인과 직결되는 能率主義에 따른 결과인 것이다.

能率主義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서, 實用主義는 전문지식을 강조하며 전문가에 대한 우대를 주장한다. 이는 毛澤東이 교육 및 관료체제에 있어 공산주의 사상을 증시하는 '紅'에 치중하여 전문지식계층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신했던 것과는 달리, 鄧의 實用主義는 전문지식인 등의 '專'을 더 증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鄧小平의 實用主義路線의 이념적 특징은 經濟決定主義, 唯物主義, 階級和合 및 能率主義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實用主義는 社會關係와 上部構造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능률주의를 강조하며, 따라서 생산력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經濟第一主義'의 입장이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Ⅲ. 社會主義初級段階論과 中國式 社會主義

1. 社會主義初級段階論의 意味

상술한 바와 같이 生産力 發展을 최우선시 하는 鄧小平體制는 그것의 논리적 귀결로서 社會主義初級段階論을 제시하고 있다. 1981년 6월 발표된 '建國 이래 黨의 약간의 歷史問題에 관한 決議'에서도 중국은 사회주의제도가 이미 확립된 사회주의사회이지만, 중국의 사회주의는 초급단계에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1982년 12차 당대회에서 당시 총서기였던 胡耀邦도 "중국의 사회주의사회는 현재 초급발전단계에 있으며 아직 물질문명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1986년 9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2기 6中全會에서 통과된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에 관한 결의'에서도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노동에

25) "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 「人民日報」, 1984年 10月 21日.

다른 분배와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²⁶⁾

1987년 10월 개최된 中國共產黨 제13차 全國代表大會에서 당시 총서기였던 趙紫陽은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 진진하자'는 정부공작보고에서 社會主義初級段階論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²⁷⁾

趙紫陽은 中國이 社會主義初級段階에 처해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첫째, 중국사회는 이미 사회주의 사회이며, 둘째 중국의 사회주의 사회는 아직도 초급단계에 처해 있으므로 중국은 반드시 이러한 실제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 단계를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근대 중국의 구체적인 역사조건 아래서 중국 인민들이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된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혁명발전 문제에 있어서의 기계론이며, 우경적 착오의 중요한 인식 근원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생산력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않고서도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혁명발전 문제에 있어서의 공상론이며, 좌경적 착오의 중요한 인식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중국의 사회주의는 반식민·반봉건사회로부터 생겨났기에 생산력 수준이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 바로 이 점이 중국으로 하여금 반드시 장기간에 걸친 초급단계를 거치면서 여타의 많은 국가들이 자본주의 조건 아래서 실현하는 공업화와 생산의 상품화, 사회화, 현대화를 실현하도록 결정지었다는 것이다.²⁸⁾

또한 중국처럼 낙후된 東方의 大國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발전사에 있어서 새로운 과제라고 한다. 즉,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기초위에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마르크스주의 창시자의 전제와 다를 뿐 아니라 기타의 사회주의 국가와도 완전히 다르다. 교과서에 따라서도 안되고, 외국을 따라서도 안된다. 반드시 국가의 실정에서 출발하여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원리를 중국의 실제와 결합시켜, 실천 속에서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노선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⁹⁾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모든 국가가 사회주의로 진입할 때 거쳐야만 하는 최초의 단계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생산력이 낙후되고 상품경제가 발달되지 못한 조건 아래서 중국이 사회주의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특정의 단계를 지칭한다고 한다. 중국이 50년대에 생산수단의 사유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기초를 완성한 때로부터 앞으로 사회주의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때까지 최소한 1백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 단계에서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모순은 날로 증가하는 인민의 물질 문화적 요구와 낙

26) 1981년의 '역사결의'와 1982년의 胡耀邦의 연설문, 그리고 '사회주의 정신문명에 관한 결의' 내용은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十一屆 三中全會以來 重要文獻選讀」(人民出版社, 1987), 上冊, pp.294~352, pp.469~525와 下冊, pp.1152~1169에 수록되어 있음.

27) 趙紫陽, "沿着有中國特色的 社會主義道路前進," 「人民日報」, 1987年 11月 4日, 「中蘇研究」, 11권, 4호(1987/8 겨울), pp.245~280에 번역되어 있음.

28) 위의 글, "사회주의 초급단계와 당의 기본노선" 참조.

29) 위의 글.

후된 생산력간의 모순이므로, 현 단계의 주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품경제 발전에 전력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고 공업, 농업, 국방 및 과학기술 현대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해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해 생산관계와 상부구조 가운데서 생산력 발전에 적응치 못하는 부분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⁰⁾

요컨대, 중국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빈곤과 낙후를 점차적으로 탈피하여, 농업국가에서 현대화된 공업국가로 변화해가는 단계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정치적인 차원에서나 경제적인 차원에서 일반적인 사회주의의 특징,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와 공유제 경제, 그리고 노동에 따른 분배의 실시 등을 공유하고 있지만 사회주의의 우수성을 모두 갖춘 그런 사회가 아닌 '미발달된 사회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일반적 사회주의 사회와도 구별되는 것이다.³¹⁾ 이런 점에서 모든 사회가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니며,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만큼 물질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사회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여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게 되는 경우에만 거치게 되는 '특정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중국의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는 여러가지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마르크스주의가 지도적인 지위로 확정된다. 왜냐하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원리와 중국의 현대화 건설을 결합시킨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노선에서도 마르크스주의는 주요 내용이 되는 것이다. 특히 趙紫陽은 마르크스주의의 史的 唯物論은 원래부터 생산력이 모든 사회 발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사회주의의 탄생, 사회주의의 어느 단계로부터 다른 단계로의 이행, 그리고 공산주의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가 생산력의 발전과 유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개혁과 개방을 견지하는 이유도 그것이 생산력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보장해주기 때문이며, 생산력이라는 기준을 이탈하여 추상적인 원칙과 공상적인 모델로써 생활을 판단하게 되면 마르크스주의의 명예를 손상시킬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생산력의 결정적 작용을 인식하고, 생산력이 근본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든 경제적 토대와 상부구조와의 모순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생산관계와 상부구조의 변혁을 진정으로 현대 중국의 생산력 발전의 상황과 요구에 적응시켜 주관적인 恣意性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³²⁾ 이점에서 정통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단계론에 근거하여 중국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즉, 마르크스주의를 중국의 현실과 관련시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으로 재해석하고, 나아가 이러한 논리를 '中國式 社會主義'의 주요한 논리적 축으로 이론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의 초급단계에서는 여러 종류의 경제형태가 존재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다양한

30) 위의 글.

31) 于光遠, "社會主義 初級段階的 經濟," 「中國社會科學」 第3期(1987), pp.73~88. 徐鎮英, "社會主義 初級段階論과 中國的 社會主義," 「國際政治論叢」, 제29집, 2호(1989), p.290에서 재인용.

32) 趙紫陽, 앞의 글, "중국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참조.

사상과 의식형태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여러 종류의 학설과 관념, 그리고 思潮가 공존하게 된다. 세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는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발전과 개혁·개방을 추진하려는 사상과 관념상의 개혁이 있게 되므로 의식형태가 부단히 변혁하는 단계이다. 네째, 초급단계에서는 경직성과 자유화의 경향이 오랫동안 공존하게 되므로 자산계급 자유화사상이 만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은 '實事求是의 原則'과 '실천은 진리검증의 유일한 표준'임을 견지하고, 실제에서 출발하도록 이론과 사상·정치교육의 내용과 형식 및 방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³³⁾

2. 中國式 社會主義의 特徵

상기한 바처럼,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는 중국식 사회주의는 그 근본과제가 생산력의 발전에 있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강조한다.

첫째, 公有制를 주체로 하면서도 다양한 경제구성 요소들의 공존과 발전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자들은 모든 사회주의 사회가 단일한 소유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것은 마치 자본주의 사회에서 私的 所有와 더불어 公的 所有형태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적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사회라고 해서 단일한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이 획일적으로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公有制의 정도와 범위는 사회적 발전 정도, 특히 生産力의 발전과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는 중국에서 公有制 경제만을 강조하는 것은 좌경적 편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초급단계론자들은 公有制 경제가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私營經濟를 포함한 다양한 소유제형태가 공존·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個體經濟는 물론이거니와 자본주의적인 私營經濟와 合作經濟, 그리고 국가자본주의적 형태의 경제구성요소들이 국유제 및 집단소유제의 경제와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⁴⁾

둘째, 이와 같이 다양한 소유제구조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公有制 경제부문에 있어서도 所有權과 經營權의 분리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다양한 經營方式을 도입·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농촌경제부문에서는 자유시장의 역할을 회복하고 物的 誘因을 확보함으로써 농업생산을 증대 시키자는 목적하에 '農業生產責任制'³⁵⁾를 실시하여 脫集團化의 추진과 농민들에게 私有地의

33) 丁頌彥, 王興富, 商孝才主編, 「中國特色社會主義概論」(廣西教育出版社, 1988), pp.3~4 참조. 張公子, "中國特色的 社會主義와 改革政治," 「國際政治論叢」, 제30집, 2호(1990), p.272에서 재인용.

34) 「光明日報」, 1987年 6月 29日. 徐鎮英, "社會主義 初級階級論과 中國的 社會主義," pp.290~291에서 재인용.

35) 生産責任制는 인민공사의 하부조직인 생산대에 속해 있는 개별 농민이나 自願農民으로 구성된 특별한 작업집단이 생산할당량과 보상에 관하여 생산대와 계약을 맺는 제도이다. 이는 종래의 집단노동에 의한 과업목표 달성 방식에서 가족 내지는, 소작업집단에 의한 자발적 영농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능가별청부제인 '包產到戶制'와 경영능가별청부제인 '包幹到戶制'가 있다. Che-yuan Cheng, "Economic Reform in Mainland China: Consequences and Prospects," *Issues & Studies*, Vol.22, No.12(Dec.1986), pp.16~17 참조.

폭을 확대시킴으로써 이미 소유권과 경작권의 분리가 실현되었다. 즉, 농토의 소유권은 여전히 집단소유로 남아 있으면서도 개별농가들에게 15년 이상의 경작권을 허용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작권의 전매 행위까지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체경제의 영역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³⁶⁾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全民所有制의 도시기업에 대해서도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여 경영의 합리화·효율화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임대·주식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기업들은 보다 많은 재정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의사결정권이 강화되었다. 또한 국내에서 이러한 과감한 개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經濟開放政策을 추진·확대했던 것이다.

세계,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자들도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사회전체의 소유가 되며 사회전체가 하나의 경제적 주체가 되어 계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고 상품과 화폐가 사회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현 단계의 중국의 경우는 '계획경제적인 상품경제'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1984년 10월에 열린 中國 共產黨 제12기 3중全會에서 도시 기업부문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전반적인 개혁정책으로 채택된 '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에서 중국의 특색을 갖추고, 생기와 활력으로 가득찬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수립하며 사회생산력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을 기본 임무로 천명하고 다음과 같은 개혁추진을 목표로 내세웠다. ① 기업의 활력증진을 위한 기업자주권의 확대와 노동자의 주인으로서의 지위 보장, ② 가치법칙을 고려하여 운용되는 계획체제에 입각한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발전, ③ 자유가격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합리적 가격체제의 수립, ④ 각급 정부가 기업을 직접 경영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정부와 기업의 직책분리, ⑤ 경제책임제의 확립과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 즉 공장장 책임제의 시행, 노동조합 조직과 근로자의 대표가 기업의 중대한 결정과 행정에 대한 감독 및 평균주의 사상의 불식, ⑥ 대외적 경제기술 교류확대, 즉 대외개방을 장기적인 기본 국책으로하여 대외 경제기술교류와 합작규모의 적극 확대, 경제특구 및 연안항구도시 개방 확대, ⑦ 당의 영도를 강화하여 개혁의 순조로운 진행보장 등이다.³⁷⁾

여기에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자들은 계획경제와 상품경제를 대립적으로 사고하는 과거의 도식적 견해를 비판하고, 중국식 사회주의의 특징을 '공유제를 주체로 한 계획적 상품경제의 발전'이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초급단계론자들은 그 동안의 지령성 계획을 위주로 한 경제에 대한 '직접관리' 방식을 지양하고, 지도성 계획경제로 전환함으로써 '국가가 시장을 조절하고 시장이 기업을 유도하는' 간접관리의 방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자들은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시장·분업·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개인 및 기업의 경제적 동기부여를 확대하여 고급화된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확립·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6) 徐鎮英, "鄧小平體制的 農村經濟政策," 「亞細亞研究」, 27:2(1983), pp.89~106 참조

37) "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 「人民日報」, 1984年 10月 21日.

'사회주의 상품경제'란 진정한 價値의 法則(the law of value)에 입각하여 생산되고 교환될 수 있도록 계획경제의 부분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이다.³⁸⁾ 즉 개인과 집단은 그들이 창출한 가치만큼 옹분의 댓가를 받아야 하며 모두 함께 한 술의 밥을 다 먹어버리는 '咆大鍋飯'의 불합리성을 지양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경제적인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도하고, 당과 기업, 정부와 기업을 분리함으로써 기업이 당과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계획·생산 및 분배에 있어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격결정에 있어 價値의 法則을 인정할 경우에는 이는 곧 시장의 역할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의 가격결정권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탈중앙집권화의 길을 마련해주는 것이다.³⁹⁾

따라서, 이러한 '중국식 사회주의'는 價値의 法則에 입각한 '社會主義 商品經濟'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生産力의 급격한 발전을 목적으로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제한적으로 활성화하고,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하부 단위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며, 국가계획과 민생에 관련된 중요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지령성 계획을 실시하지만, 기타의 경제활동(일부 농산품, 일용상품 및 서비스 등의 용역활동)에 대해서는 지도성 계획 또는 완전한 시장조절을 실시하는 '계획경제적 상품경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생산수단의 공유원칙을 고수하며 자원배분면에서 국가의 계획기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구별된다. 이 두가지 기본성격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안전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네째,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자들은 분배에 있어서 평균주의적 경향을 비판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파생하는 소득의 불평등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共同富裕'의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일부지역·일부계층이 우선적으로 富裕해 지는 것'(先富)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⁴⁰⁾

더구나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중국식 사회주의'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多種經濟, 多種經營이 발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노동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자본과 자금이윤으로부터 나오는 소득부문이나 경영이윤에서 파생하는 비노동수입의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해야 하며, 부분적으로 잉여노동의 착취라든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부활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와 같이 교조적인 태도를 견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⁴¹⁾

상기한 바의 특징을 갖고 있는 중국식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계획경제를 '主'로 하고 시장경

38) Kent M. Wiedemann, "China in the Vanguard of a New Socialism," *Asian Survey*, Vol. XXVI, No. 7 (July 1986), p. 784.

39) *Ibid.*

40) 李君如,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평등개념에 대한 시론," 「中蘇研究」, 제12권, 제4호(1988/89, 겨울), pp. 205~211 참조.

41) 徐鎮英, "社會主義 初級段階論과 中國의 社會主義," p. 292.

제적 요소를 '從'으로 하는 '계획경제적 상품경제'이기 때문에 엄연히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모든 생산수단은 여전히 공유화되어 있고, 착취계급의 등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기업을 물질적 유인으로 자극하는 것이 하등 사회주의 추구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한다.⁴²⁾

요컨대, 鄧小平體制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는 '社會主義 商品經濟'라는 새로운 모형의 '중국 특색을 지닌 社會主義'를 창출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곧 대규모 生産手段을 국가가 소유하여 자원배분면에서의 전국적인 계획경제를 실시한다는 점에서는 社會主義의이라 할 수 있으나, 生産力의 발전을 위해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따르는 생산, 분배와 이윤제도를 크게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社會主義 典型에서 크게 벗어난 '中國式 社會主義'의 새로운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중국식 사회주의'노선은 경제건설(現代化)을 중심으로 4개 기본원칙과 개혁·개방을 견지한다는 '1中心(現代化) 2基本點(4項堅持原則 고수와 개혁·개방)'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⁴³⁾ 鄧小平體制의 중국식 사회주의는 그것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한 毛思想이나 마르크스주의와의 결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마르크스 이론을 수정하면서 자본주의 요소를 대폭 수용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모택동사상의 전통을 그대로 지켜나가려는 이른바 '經濟反左·政治反右'의 정책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鄧小平體制는 四項基本原則이 생산력 발전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改革·開放이 속박받는 생산력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그 기본적인 임무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양자간의 상호 조화와 보완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中國式 社會主義'는 경제분야에서 극좌적 경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經濟反左', 정치분야에서 우경으로 치달는 것에 반대하는 '政治反右', 당내 당권의 조직과 생활에 있어 극좌적 경향을 극소화하기 위한 '黨內反左', 당의 일반인들의 자유·민주의 요구, 즉 자산계급의 자유화 경향을 반대하는 '黨外反右'라는 조합적이고 동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것이다.⁴⁴⁾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두가지 중심 내용인 經濟的 改革·開放과 政治的 四項基本原則이 내포하고 있는 對立性和 衝突性이다. 이 양자간의 모순성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이론화 과정과 개혁정치의 실제 전개과정에서 지도부의 인식을 분열시키는 중심 쟁점이 되어 왔던 것이다. 그것은 6·4천안문 사태나 최근의 동구·소련의 개혁을 보는 관점에서도 큰 차이를 노정시키고 있다.

42) 유세희, 앞의 글, p.35.

43) 趙紫陽, 앞의 글, "사회주의 초급단계와 당의 기본노선" 참조; 堅持四項基本原則은 社會主義道路의 堅持, 無產階級專政堅持, 共產黨領導堅持, 마르크스·레닌主義·毛澤東思想堅持를 말한다. 「鄧小平文選(1975~1982)」(北京:人民出版社, 1983), pp.144~170 참조.

44) 金達中, "中國의 改革政治와 이데올로기," 한국사회주의체제 연구협의회 1991년도 연차학술회의 발표논문, p.11 참조.

IV. 結論 : 評價 및 展望

생산력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中國式 社會主義'는 경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1984~88년 기간 동안 매년 평균 11.1%의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며, 국민 소득도 매년 10.7% 증가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농민 임금은 매년 8.6%, 도시 노동자 임금은 6.3% 상승하였다.⁴⁵⁾ 이 결과 1988년 국민총생산이 1950년의 약 12배 정도인 3,78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국가 소유의 산업용 고정자산은 1949년의 무려 126배에 해당하는 5,410억 달러로 신장되었다. 대외무역 규모 역시 엄청난 증가율을 보여 수출입 총액의 경우 1988년에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하여 1,02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1988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19%, 통화팽창률 30%, 그리고 405억 달러의 외채를 유발시킴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시키기도 했다.⁴⁶⁾

더우기 개혁은 사회 전반에 배금주의를 만연시켜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하게 나타났으며, 계층간의 소득 불균형과 지역간, 산업간의 불균등발전과 같은 심각한 정치·경제·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소득 격차와 불균형은 '빈곤의 평등'이 야기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이 취한 경제개혁 조치, 즉 소유·경영제도의 다양화, 경제 활동에 대한 결정권의 지방분권화, 그리고 노동에 대한 물질적 유인의 허용 등이 초래시킨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이와 같은 지역간, 계층간, 직업간 소득 격차는 1980년대 후반에 중국 인민들로 하여금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한 조직화를 적극화시켜, 중국 사회에 새로운 多元主義 현상을 노정시키게 되었다.⁴⁷⁾ 이처럼 개혁·개방이 초래한 경제·사회 부문의 변화는 사회적 이익과 요구의 多元化로 이어졌고, 이것은 급기야 四項基本原則과 共產黨의 권위 및 정통성에 대한 지식인의 도전과 民主的 價値와 競爭的 政治體制의 도입 요구로 이어졌던 것이다.

1989년에 발발한 6·4 天安門事態는 이러한 10년간의 개혁 과정에서 노정된 재반 부작용, 즉 인플레이와 유통질서 혼란, 불균등 발전 논리와 차등분배 확산에 따른 지역간·계층간의 소득격차, 건국이후 계속 누적되어 온 각종 봉건병폐와 심화된 관료주의, 당정기능 분리 및 세대교체의 부진 등 政治改革이 經濟改革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 그리고 이들 모순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과 학생·언론인 등 대다수 지식인들의 회의감과 비판의식등이 복합되어 나타난 것이었

45) Lowell Dittmer, "China in 1988: The Continuing Dilemma of Socialist Reform," *Asian Survey*, Vol. XXIX, No.1 (January 1989), p.18.

46) *Beijing Review*, Vol.32, No.40 (October 2~8, 1989), pp.29~34 참조.

47) John P. Burns, "China's Governance: Political Reform in Turbulent Environment," *The China Quarterly*, No.119 (September 1989). 金達中, 앞의 글, p.26에서 재인용.

다.⁴⁸⁾

6·4천안문 사태 발발의 핵심적 요인은 經濟改革과 관련하여 아래로부터 제기되는 政治的 民主化 요구와 관련되었다. 즉, 사회주의 초급단계하에서의 政治改革이라는 上部構造의인 問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중국 지도부와 대학생등 지식인들간의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었다.

鄧小平의 집권이후 經濟改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인방 추종세력 이외에는 중국 지도부내에 異見이 없었다. 그러나, 그 경제개혁의 범위와 특히 이와 관련하여 정치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수파와 개혁파로 양분되어 권력투쟁의 양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보수파는 소극적인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의 유보를 표명한 반면, 개혁파는 적극적이며 대폭적인 경제개혁과 이를 위해서는 과감히 정치개혁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黨의 領導는 정치에만 국한되어야 하며, 따라서 국가정권기관, 기업과 사업단위 및 대중단체로부터 당조직을 최대한 철수시켜 이들 조직의 自主權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급진개혁파라 불릴 수 있는 소수의 지식인 엘리트들은 共產黨 一黨獨裁 포기를 주장하고, 서구식의 政治的 多元主義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胡耀邦의 추모집회를 위해 천안문 광장에 집결한 대학생들은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공격하였고, 이는 물가등귀로 생활의 위협을 받았던 도시 노동자와 지식인 계층의 동정과 지지를 받으면서 확산되었으며, 부정부패 척결 요구는 필연적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민주화 요구에 대해 鄧小平은 결국, 보수파와 합세하여 학생들의 시위를 '共產黨의 領導와 體制를 부정하는 계획된 음모'⁴⁹⁾로 보고, 反革命暴亂으로 규정하여 학생들의 시위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던 개혁파의 대표인 趙紫陽을 총서기에서 해임하고 후임에 中道 지향적인 江澤民을 임명했던 것이다.

天安門 事態이후 鄧小平體制는 국정운영의 핵심을 社會主義 견지하의 안정 확보에 두었다. 정치영역에서 사회주의와 공산당 통치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여, 사회주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선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언론 통제와 毛澤東思想의 학습을 강조하는 한편, 서방세계의 사상, 문화, 정신적 침투를 방지하는 3반투쟁과 반자산계급자유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경제영역에서도 보수파가 강조하는 '治理·整頓' 정책을 강력히 실행하여 경제에 대한 중앙의 계획성과 통제성을 강화하였다. 즉, 국가계획위원회의 감독과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간의 협의와 조정을 꾀하기 위한

48) 천안문사태에 대한 분석은 다음 참조. Lucian W.Pye, "Tiananmen and Chinese Political Culture: The Escalation of Confrontation from Moralizing to Revenge," *Asian Survey*, Vol. XX X, No.4 (April 1990), pp.331~359; Lowell Dittmer, "China in 1989: The Crisis of Incomplete Reform," *Asian Survey*, Vol. XX X, No.1 (January 1990), pp.25~41.

49) 「人民日報」, 1989年 4月 26日字 참조. 천안문사태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金遠中, 앞의 글, pp.28~35 참조.

생산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거시·미시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 경제조직내에 당 기능을 강화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개혁·개방을 포기한 것은 아니나, 4項基本原則의 견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천안문 사태가 중국식 사회주의에 가한 내적 충격이었다면, 베를린 장벽의 와해를 기점으로 시작된 동구와 소련의 사회주의권의 변화는 중국 지도부에 강타한 외적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⁵⁰⁾ 양자는 충격의 근원(국내와 국외)이라는 측면에서는 상이하나, 충격의 효과면에서는 동질성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주의권의 변화는 중국 지도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 바, 그것은 첫째, 黨內 結束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즉, 보수파든 개혁파든 공산당원이라는 동일한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공산당의 존속'이라는 공동의 가치 보존을 위해서는 같은 이해관계에 있으며, 黨과 생산존망을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사회주의권의 변화가 보수파로 하여금 천안문 사태의 무력 진압 조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보수파들은 동구 및 소련의 변혁은 단순한 개혁의 차원이 아니라 자본주의 침투에 의한 체제 붕괴였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천안문 사태 역시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와 공산당의 와해를 획책한 자산계급 세력의 음모였다는 논리를 정당화해주어, 이에 입각한 광범위한 대내선전이 설득력있게 전개될 수 있다.

아름다운 사회주의권의 변화 충격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중국식 사회주의에 있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공산당의 영도를 강조하는 이른바 4項基本原則의 견지하에서의 부분적인 개혁과 개방이라는 보수파의 방침을 더욱 더 고수하게 하였다. 이는 91년 8월 소련의 보수파에 의한 쿠데타 실패이후,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資產階級自由化, 經濟市場化, 政治多元化 및 군대에 대한 당의 지배를 반대하는 軍隊國有化 등 이른바 '新四化路線'을 사회주의 노선의 현 중국 정권을 위협하는 당면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권한을 가진 工作小組를 당내에 조직하기로 결정했는 바,⁵¹⁾ 이는 중국 지도부의 심각한 위기의식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생산력의 발전을 최우선시하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中國式 社會主義'는 장기적으로는 경제발전을 위해 대폭적인 대내외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조짐은 이미 현 중국 지도부가 대외적인 고립을 피하기 위하여 천안문 사태시의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서방측과의 화해 제스처를 보이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보수파의 공세로 수세에 몰렸던 개혁파가 보수파가 추진해 온 '治理·整頓'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서서히 보수파에 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개혁파는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은 경제 실패로 사회주의 체제의 안정을 기하지 못한 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오히려

50) 천안문사태와 사회주의권의 변화가 중국 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다음 참조. 金聖興, "13期 5中全會以後의 中國政治," 「統一問題 研究」, 제3권, 3호(1991년 가을), pp.292~322.

51) 「東亞日報」, 1991년 8월 13일자 참조.

려 中國에 있어 사회주의 체제를 지속·강화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경제력의 확보야말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력을 강화하여 저항력을 키우는 것이 외부로부터의 자본주의 침투로부터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는 것이다.

지난 1월 말 鄧小平이 深圳, 珠海 등 경제특구를 방문,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할 것을 역설했다. 鄧은 이데올로기에 집착하기 보다는 인민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체제 전복의 위협이 없어진다고 보며, 개혁 및 개방은 중국의 유일한 활로이며 개혁을 행하지 않는 자는 퇴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鄧은 이를 위해 천안문 사태 이후 毛澤東思想의 부활을 주장해온 정치국 상무위원 宋平, 당 선전부장 王忍之 및 보수파 이론가 鄧力群 등 보수파의 관리들을 서서히 숙청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는 바,⁵²⁾ 이는 鄧이 제2단계의 개혁 및 개방 전략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 노선은 중국 군부의 실력자이며 인민해방군 총정치부주임인 楊白冰이 "중국인민해방군은 경제개혁을 위한 호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⁵³⁾고 역설하는 것으로 보아, 점차 군부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92년 3월 20일부터 개최된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金人大) 5차회의에서는 보수파의 李鵬 총리마저 경제개혁의 가속화를 추구하고 나섰으며, 개혁·개방의 확대·심화를 추구한 鄧小平 노선에 대한 지지가 쏟아졌다. 특히 일부 인민대표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계획경제 추진의 명령탑 격인 國家計劃委員會의 해체를 주장하였다고 한다.⁵⁴⁾

물론 이러한 개혁파의 움직임에 대해 보수파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앞으로의 중국의 정치 상황은 保·革 대결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鄧小平은 70년대 말 이후 추진된 近代化 노선이야말로 자신의 최대의 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여하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產業大國의 기초를 다져두려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개혁·개방 정책은 보수파의 반발을 무릅쓰고 서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앞으로의 '中國式 社會主義'는 政治的인 면에서 4項基本原則의 견지를 고수하는 한편, 經濟的인 면에서 社會主義體制가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대폭적으로 資本主義的 要素를 수용하여 改革·開放을 추구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노선은 로벤탈(Richard Lowenthal)이 예견한 바처럼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와 발전'⁵⁵⁾이라는 딜레마에 계속 직면할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는 초기 혁명기를 지나 혁명 관리기에 들어서면 사회주의적 유

52) *The South China Morning Post*, March 5, 1992.

53) 「東亞日報」, 1992년 3월 24일.

54) *The South China Morning Post*, March 27, 1992.

55) Richard Lowenthal, "Development vs. Utopia in Communist Policy,"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p.33~110 참조.

토피아를 너무 강조하면 발전이 안되고, 발전으로 치중하다 보면 유토피아적인 사회주의적 이념과는 점차 멀어져 버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딜레마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자본주의적 요소를 수용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中國式 社會主義' 이데올로기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서 오는 필연적인 딜레마이며 한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개방에 따른 産業化는 도이치(Karl Deutsch)의 주장처럼, 중국 인민들로 하여금 社會動員過程(Social Mobilization Process)을 겪게 할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 인민들의 정치참여의 폭을 넓히려는 요구, 즉 정치적 민주화의 요구가 거세어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가 산업화에 따른 이러한 정치참여 욕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 당국은 다시 한번 제2의 천안문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Summary

Deng Xiaoping Regime's Pragmatist Ideology and Chinese-style Socialism

Kang Kun-hyung

Two most salient developments in Chinese politics in recent years are unquestionably, the rise of Deng Xiaoping as the most powerful leader of the mainland China and the persistent pursuit of Dengist pragmatism. In 1978 Deng mounted a major campaign to abandon ideological dogma and to adopt pragmatism—symbolized by the slogans “practice is the sole criterion of truth” and “seek truth from fact.” Deng persuaded the party to give the highest priority to economic development instead of class struggle and to adopt an economic reform and an open door policy toward the world.

In this context, the purposes of this thesis are threefold. First, it is analyze the ideological distinction of Deng Xiaoping Regime's pragmatist ideology. Second, it is to examine the first stage of socialism and ‘Chinese-style socialism’ which are emphasized by Chinese pragmatists. Third, it is to extract the fact that the ideological characteristic of pragmatism creates a new model of ‘Chinese-style socialism’. In relation to that, I will predict how ‘Chinese-style socialism’ is going to develop.

Chinese pragmatists argue that the improvement of productive forces should be the prime force for the socialist construction in China. As part of an effort to raise the productive forces, they assert that China should introduce meritism and some elements of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They also summarize that the distinction of pragmatist ideology is economic determinism, materialism, class harmony, and meritism.

Chinese pragmatists define the present state of Chinese society as the first stage of socialism. It does not generally mean the first stage which all countries should pass through when they go into socialism, but implicates the special stage which should necessarily go through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socialist state under the condition of underdeveloped productive forces and commodity economy.

China seeks to create a new model of ‘Chinese-style socialism’ suitable to her situation. That is the socialist commodity economy based on public ownership in which the law of value must be consciously accompanied and applied.